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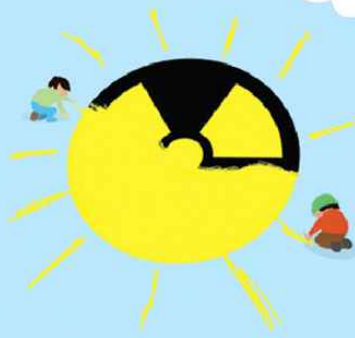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속살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플루온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박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망공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10대 뉴스 ⑦~⑩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⑦ 트럼프 두테르테 당선

11월8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거침없는 막말과 천박한 사고를 가진 트럼프였지만, 그간 경제적으로 소외돼왔던, 그래서 기득권층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던 백인들을 움직였습니다. 한겨레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답지 않은' 거친 행동과 전술이 오히려 '정치적 올바름'에 지친 지지자들을 흥분시켰다는 평입니다. 이런 선택이 과연 미국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까요? 이런 가운데 5월9일 실시된 제16대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각종 막말과 기행으로 악명 높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의 별명은 필리핀의 트럼프입니다. 두테르테는 취임 이후 '마약 소탕 작전'을 벌여 3개월간 3천여명의 마약 용의자가 사살됐고요, 당연히 무고한 민간인도 피살당했습니다. 그런 두테르테의 지지율은 하늘을 찌릅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찾는 민심, 거기에는 대안도 비전도 제시못하는 정치가 있었습니다.

⑧ 해운 조선 AI 무능 대응

이번엔 위기에 손 못 쓰는 정부의 무능이 해운과 조선업 위기 그리고 연말을 강타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초래됐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은 청산을 앞두고 있고, 4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조선업 구조조정도 수만명의 실직지만 양산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현금 조달을 못해 오늘 내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칙대로 했었지만 구조조정 실패는 뒤집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앞에서 정부도 없었습니다. 지난 11월16일 전남 해남 농가와 충북 음성에서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한 달여 만에 30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AI발생 한달 후에야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의 몰락

대통령 박근혜는 세 차례 사과하고, 검찰은 최순실과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측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용납할 국민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를 공범으로 적시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박근혜가 은닉하려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 청구로 전대미문의 국헌문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12월 9일 박근혜 탄핵안을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 파장으로 새누리당은 99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만, 한국사회의 각종 적폐를 내재한 박정희 망령의 몰락을 동반하는 정치사회적 의미까지 낳고 있습니다.

⑩ 위대한 촛불혁명... '광장 민주주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불가분의 관계지만 이 혁명은 이미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10월 29일에 시작된 이 위대한 혁명에 주목했습니다. 12월 3일에는 전국에서 232만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혁명사를 새로 쓰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민주주의'가 구현된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소추의 동력이 됐고, 탄핵이 인용되면 '시민혁명'으로써 온전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 대상이 주체가 되다니

한겨레 靑, '감사원 세월호 발표' 손 봐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감사 결과 발표는 청와대에서 미리 손 본 것이라고 증언했다. 애초에 봤던 감사원 자료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한 뒤 대폭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미리 받아 검토'라는 기록이 있다. 누가 했느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감사 결과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은 대통령이었다

한국일보 최순실 "국정 신경 써 머리 아파"

최순실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머리가 아파다"라며 짜증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화로 대통령 박근혜의 발언 윤곽을 가다듬거나 청와대 회의 안건에 관한 지시를 내리던 도중에 한 말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발견된 내용이다. 최순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국정을 쥐락펴락해왔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東亞日報 외국대사 준 '朴 선물', 崔가 챙겨

검찰에 의하면 최순실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공원이나 길가에서 대기시켰다고 한다. 최순실은 그렇게 대기하던 김종을 차로 픽업해서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차관을 길가에서 있게 할 만큼 최순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 대사들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선물한 기념품들은 최순실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경향신문 '2인자 남재준'도 모른 잘린 이유

박근혜 정부 2인자로 불리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4년 5월 전격 교체됐다. 이에 최근 언론에서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순실을 조사하다 도리어 '찍어내기'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도 당시 왜 경질됐는지 몰랐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본인이 잘린 이유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

한국일보 靑, '삼성합병' 반대 공무원 축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정책국을 총괄하는 한 고위간부를 불러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라며 그만 두라고 통보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공무원이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업체 두 곳에 삼성 합병 '반대' 의견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공무원을 찍어 냈다는 이야기.

국민일보 문형표, 외부위원들 뒷조사

이뿐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 위원들의 성향·출신·추천기관 등을 파악한 보건복지부의 보고서를 확보한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표결 예상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문건의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崔, 삼성과 협의해 재단 설립?

최순실이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를 설립하기 4개월 전부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승마협회에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2015년 국가대표훈련 촌외 훈련 승인 요청서'를 입수한 것이다. 또한 이 문건은 최순실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작성해서 삼성이 회장사인 대한승마협회에 제출했다. 코레스포츠는 삼성의 자금 지원 창구로 지목되고 있는데 코레스포츠를 설립한 것이 삼성과의 사전 협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 사실 개인 정유라가 지원대상이면 부담이 되지. 하지만 코레스포츠라는 법인을 상대로 하는 거라면, 결과는 결국 정유라 개인 지원이긴 해도 적절한 지원 절차라고 봤던 것이다. 삼성이.

한국일보 이견희 사위 김재열 ‘뇌물죄’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재열 사장은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둘째 사위지? 김재호 현 동아일보 사장 동생이고, 특검 수사가 삼성그룹 오너 일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김재열 사장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재열 사장이 최순실과 삼성의 또 다른 ‘검은 거래’에도 관여했다고 볼 만한 단서도 확보했다.

新 ‘겨울 공화국’

한국일보 ‘송민순 회고록’ 낸 창비도 철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언이 붓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먼저 창비 출판사는 세월호 유가족의 목소리를 책으로 묶어낸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냈는데 그 이후 세종도서 선정 사업에서 줄줄이 떨어졌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 그리고 단체 직원들 역시 사석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한다. 블랙리스트를 앞세운 청와대의 강력한 압박을 받아내느라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았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정윤희 문건’에 광고탄압으로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희문건’을 보도했지? 그러자 청와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압박해 세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세계일보에 광고를 내자 청와대 측이 공단 관계자들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후 1년간 세계일보 광고를 중단했고 복지부 산하의 또 다른 공공기관의 세계일보 광고는 2013년에 비해 70%나 줄었다.

송박영신

중일일보 내년 봄엔 ‘벚꽃 대선’ 전망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은 “원래 빨리 해야 하는 게 탄핵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부가 탄핵 재판의 절차적인 부분을 압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월 중반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월 중반이면 대선이 4월 중반이겠네?

오늘의 칼럼

경향신문 “늦게 온 정의는 정의롭지 않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늦게 온 정의는 정의롭지 않다”입니다.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코멘트가 태생적 경제신분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를 분노케 하더니, 그녀의 어머니 최순실이 숨겨놓은 자산이 최대 수조원에서 최소 몇 천억 원이라는 보도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분노할 힘조차 없이 좌절을 맛보게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자마자 계층 이동의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을 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경제력을 넘어서기 힘든 현실을 맞아야 하는 청년세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올해 추징금 미납액수가 24조원에 달하고 추징된 액수는 겨우 0.1%에 불과하다는 법무부 자료는 우리를 절망케 한다. 부정부패한 재산을 추징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이 그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사법정의를 미완성이다. 미완성인 사법정의를 정의가 아니다. 범죄자에게 그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범죄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범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범죄자들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그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축적한 불법적인 재산의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조사나 특검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국정농단을 주도한 비선 실세들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살살이 추적하여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범죄수익의 환수는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고 법치국가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본지표이기 때문이다.